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죠”

코믹·로맨스·오컬트 등 요소 다양한 쫄맨 속물 미술사 캐릭터 신선 여러 장르 겪으며 연기 갈증 커져 또래의 평범한 일상 연기 해보고파 치정 로맨스로 파격 변신 할 수도



“변화와 유지, 그 어디쯤.”

데뷔 16년째에 접어든 박해진(39)이 생각하는 자신의 현재 위치다. 그동안 스스로 “주어진 일을 잘해왔다”고 자부했다. 그러다 마흔 살을 앞둔 올해 초 문득 “남은 인생의 절반을 똑같이 살아도 될까?”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해진은 “변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계기”라고 돌아봤다. 변화의 의지를 현재 방송 중인 MBC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에 담았다. 귀신을 부리는 미술사 역을 통해 코믹, 로맨스, 오컬트 등 다양한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돈’부터 외치고 보는 속물 캐릭터여서 신선해요. 난생처음 사극 분장도 해봤답니다. 한꺼번에 다양한 매력을 느끼니 재미있어요. 다만 자칫 산만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기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드라마로 이전에 해보지 못한 장르들을 두루 경험하며 “연기의 갈증”을 새로 느꼈다.



“언젠가 농익은 매력을 뽐낼 것”이라는 목표도 생겼다.

“이제까지는 미술사,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등 특이한 인물들을 주로 연기했어요. 캐릭터의 나이대도 항상 실제 저보다 어렸고요. 그러다 보니 또래의 평범한 일상을 연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요. 지금 제 안에 있는 감성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다 혹시 알아요? 걱정 뭉kena 위태로운 치정 로맨스 같은 파격에 도전할지. 하하하!”

요즘 ‘인간 박해진’을 돌이키면서 “현실적인 고민”에도 젖어들었다. 대표적으로는 결혼 문제다. 어느덧 “미혼 친구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순간이 왔기 때문이다.

“주변의 압박 때문에 결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기는 해요. 조카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어서인지 2세에 대한 고민이 들기도 하고요. 참, 이제 진짜 저도 가야 하나 싶어요.”

당장은 최근 반환점을 돈 ‘지금부터, 쇼타임!’을 무사히 마치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다. 초반부터 드러내는 드라마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어요. 드라마를 보면 왜 그토록 제가 확신을 가졌는지 아실 겁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MBC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의 주역인 박해진이 “언젠가는 농익은 사랑을 꼭 연기해보고 싶다”며 파격 변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제공 | 마윌툰무브먼트

‘성매매 알선·원정도박’ 승리 대법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승리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29)가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서 미결 수감 중이던 그는 이날 민간 교도소로 이감됐다. 2023년 2월까지 수감된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검찰의 100만 달러(11억5000여만 원) 추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는 2009년 3월부터 3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여왔지만,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클럽 ‘버닝썬’과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해외(미국 라스베이거스 등)도박 혐의 ▲조직폭력배 동원 등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2020년 1월30일 기소된 승리는 한 달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2심은 1년 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승리는 상습도박자가 성립되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횡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승리는 전시간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됐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간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기자 annjoy@donga.com

K-다큐도 ‘세계 벽’ 뚫었다…‘사이버지옥’ 해외 관심 증폭

N번방 사건 다룬 넷플 다큐멘터리 OTT 콘텐츠 추천 통합랭킹 4위에 넷플 주간 ‘비영어 영화’ 8위 올라

일명 ‘N번방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 지옥:N번방을 무너뜨려라’(사이버 지옥)가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케이(K) 콘텐츠’로 해외 시청자에게 익숙한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터리가 화제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정성 감독이 연출한 ‘사이버 지옥’은 2020년 초 신종 사이버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사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 지옥:N번방을 무너뜨려라’가 신종 사이버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을 다뤄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사건을 재연한 점 등이 독특하다는 평가

를 받았다. 덕분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추천 플랫폼 키노라이즈의 ‘통합 랭킹’ 4위에 랭크됐다. 해외에서도 가파르게 순위를 올리고 있다. 26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글로벌 주간 톱 10’(16~22일) 비영어 영화 부문에서 8위에 올랐다. 18일 공개 후 22일까지 343만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 홍콩·베트남 2위, 대만·싱가포르 3위, 인도네시아 5위, 일본 9위 등에도 올랐다. 덴마크 멜로영화 ‘토스카나’, 스페인 영화 ‘퍼펙트 패밀러’ 등 인기작들과 경쟁해 얻은 성과다.

해외 이용자들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접한 ‘N번방 사건’ 자체에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대만 등 해외 언론 매체의 관련 보도도 이어졌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대만 경제전문 주간지 텐사잡지, 온라인 매체 연합신문망 등은 다큐멘터리를 조명하며 ‘N번방 사건’을 “26만 명이 연루된 한국의 대규모 온라인 성 스캔들”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박소영 대만 타이베이 통신원은 “대만에서 한국 콘텐츠는 주로 TV·쇼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며, 영화 부문에서 한국 영화가 10위 안에 드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그러나 ‘사이버 지옥’은 공개 직후 3위에 안착하는 등 이례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이소룡’ 신일룡, 간암 투병 중 별세



신일룡

‘한국의 이소룡’으로 불린 신일룡(조수현)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이날 유족에 따르면 신일룡은 지난해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 이날 오전 8시 11분쯤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28일이고, 장지는 분당메모리얼파크다. 1948년 태어난 신일룡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70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 ‘이조괴담’으로 뽐내는 영화계에 입문했다. 액션 연기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홍콩 액션스타 이소룡이 숨진 후 대역을 소화하기도 했다. 1976년 ‘아라비아의 열풍’으로 대중상영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첫 한국영화인 ‘여인잔혹사 물레야 물레야’(1984)에도 출연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거야’ 등을 부른 가수 조정현의 친형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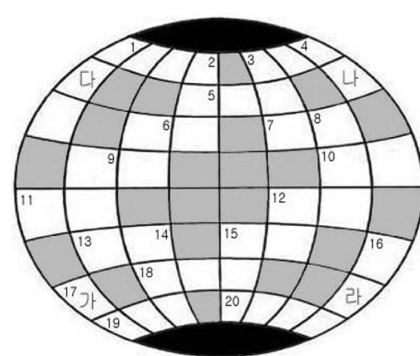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6	5				
	8	2				7	5	
	5		1		2		6	
8	7			3			1	9
		5				8		
9	1			5			3	7
	4		3		1		8	
	2	8				4	9	
			4	8				

■ 스도쿠정답

9	4	1	8	2	7	6	9	8
8	6	7	4	9	5	8	2	1
2	8	9	1	6	8	4	7	5
4	8	2	7	9	5	8	1	6
9	7	8	6	1	4	2	5	3
6	1	5	9	8	2	7	4	3
1	9	8	6	2	7	5	4	3
8	2	5	7	4	9	1	6	3
3	7	6	5	9	1	8	4	2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1. 가슴을 감싸는 여성용 속옷. 04. 물이 저절로 얼어서 이루어진 얼음. 05. 어느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06. 동물의 앞껍질 속에서 자란 새끼가 밖으로 나옴. 07.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 마음을 놓음. 09. 정한 시

각보다 늦게 도착함. 10.시가지의 길거리. 11.가격 따위를 낮춤. 12.여형제 사이에서, 손위 사람을 지칭하는 말. 13.부주의로 잘못된. 또는 그런 행위. 15.아내의 여동생. 18.남편이 있는 여자. 19.우리나라의 국기. 20.전에는 그르다고 여기던 일이 지금은 옳다고 여기게 됨. “ㅇ금시ㅇ”

■ 세로 열쇠

01.상표. ‘ㅇ랜ㅇ’. 02.조선 때, 문무과의 급제자에게 임금이 내리던 종이 꽃. 03.만 데서 일어난 일을 직감적으로 감지하는 능력. 04.입을 슬며시 벌릴 듯 말 듯 웃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한 번 웃는 모양. 06.다시마 조각, 깃털, 고추 따위에 참쌀 풀을 발라 말렸다가 기름에 튀긴 반찬. 08.쇠붙이를 녹이는 그릇. 09.건물에

서 땅속에 만들어 놓은 방. 12.잘 모르는 때를 물을 때 쓰는 말. 14.젓먹이에게 젓을 먹여 기르는 기간. 15.처음으로 지었거나 발표한 작품. 16.틀림없이 꼭. 17.아이를 뱀.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라 칸을 이어붙이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